



수행법이란... 마음을 비우는 법



무여 스님 (축서사 선원장)

해발 1206m의 문수산 정상 바로 아래 언덕을 언화대로 삼아 웅장하게 자리 잡은 축서사. 중앙고속도로에서 풍기IC로 나와서 지방도로를 따라 가다 경북 봉화군 물야면에서 시골길로 다시 8km를 더 들어간 오지에 위치해 있다. 가파르진 않지만, 꼬불꼬불한 산길이 길게 이어지다 보니 급기야 10년 넘은 승용차 본넷에서 연기가 난다. 다행히 절에 막 도착해서 차량을 점검하니, 엔진오일이 새어나와 가열된 배기통에 떨어져서 연기가 난 것이었다. 불타는 세간에서 허겁지겁 살다가 청정도량에 준비 없이 들어온 티를 내고 말았다.

-스님, 도량 정비가 마무리되어 더 많은 수행자들이 방문해 편안히 정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후원채 한 통을 빼곤 완성된 셈이지요."

-매달 축서사 참선법회에 수행자들이 많이 오는 걸 보면 참선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지요.

"2000년도부터 조계종에서 간화선 보급을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고 재가자들의 관심과 요구도 높아진 듯 합니다. 미국을 비롯한 외국에서 웰빙 바람이 분 것도 한 요인이죠. 웰빙이 되려면 결국 선(禪)을 해야 한다고 봐요."

-재가자들이 참선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반대로, 어

는 분이라 행동으로 가르치고 지도하셨어요. '잘 살아야 된다. 진정한 출가인이 되어 불법의 핵심을 느끼고 볼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수시로 간곡히 당부하셨지요."

-할아버지 스승님은 어떤 분이셨는지요?
"보문 스님은 늦게 출가하셨지만 선승으로 유명하셨는데 일찍 돌아가셨어요. 봉암사에서 성철, 청담 스님과 결사에 동참하셨고 제방선원에서 정진을 잘 하셔서 승은 도인이란 칭송도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스님께서는 행자 때부터 곧바로 참선정진을 시작하셨는데, 제방선원에서 정진하시면서 기억에 나는데 큰스님이나 가르침이 계시다면.

"한국 스님의 영향이 가장 컸어요. 선방에 들어간 지 5년만에 원래 관음사(현재 묘관음사) 조실 한국 스님을 모시고 정진했어요. 몇 짚을 나고 해제 철에 다른 분들은 만행 떠나고 혼자 큰방에 남아 정진했는데, 큰스님께서 수시로 들어와 함께 좌선하곤 했어요. 때로 저녁 늦게 들어오셔서 제가 졸면 야단을 치곤 하셨지요. 어느 편 당시 방에 오라 하셔서 여러 큰스님들의 일화와 공부담을 들려주셨는데, 직간접적으로 큰 도움이 됐어요. 요새 어록도 많고 법문도 많이 들을 수 있지만, 당시엔 <선관핵심>이 유일하게 번역된 선어록일 정도였으니까요. 조사스님들이나 노장님들의 수행담을 들을 때면 신심이 났는데, 지금도 고마움을 느끼곤 해요."

번뇌·망상 피우지 말고 안정된 상태에서

'어째서 무(無)라 했을까?' '마삼근(馬三斤)이라 했을까?'

의심하고 또 의심하면 공부 저절로 돼

2년만에 다시 방문한 축서사는 이제 도량정비 불사가 마무리 되어 장엄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매달 셋째 주말엔 재가 선객 200여 명이 철야참선법회에 참석할 정도로 이전 전국에서도 이렇나 참선전문도량이 되었다. 축서사가 이처럼 재가 선객의 총림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선원장 무여 스님의 10여 년 간의 증창불사가 오로지 출·재가를 위한 수행 및 교육공간의 조성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그동안 틈틈이 진행한 재가자 참선교육은 입소문을 타고 수행자를 모이게 한 원인이 됐다. 선지식의 선법문과 실참, 문답 및 지도점검 등이 동시에 이뤄지는 보기 드문 참선도량이란 인식이 소리 소문 없이 자리 잡은 결과다.

오늘 하나 없이 말끔하게 비칠이 된 도량은 그야말로 무여 스님의 맑고 고요한 성품을 드러낸다. 훌륭한 선지식과 편안하고 청정한 도량, 좋은 도반이 있는 이런 수행처라면 구도자들은 타는 목마름을 적시기 위해 수 백, 수 천리 길을 마다 하지 않을 것이다.

축서사를 내려다 보는 곳, 작지만 맵시 있는 소나무가 반기는 뜰을 지나 선원장에서 스님을 뵈었다.

럽다고 포기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인이 선(禪)에 깊이 들어가는 게 어렵다고들 하는데, 사실 선이 어려운 것만은 아닙니다. 마음을 담담하게 해서 번뇌망상을 피우지 말고 안정된 상태에서 '어째서 무(無)라 했을까?' '어째서 마삼근(馬三斤)이라 했을까?' 하면 의심이 납니다. 비록 강하고 진정한 의심은 아니지만 계속 의심을 꾸준히 지어가다 보면 참다운 의정이 생겨 화두 드는 재미가 속속 나게 됩니다. 그것이 간절하게 한결 같이 익어지면 좌선을 안 해도, 일부러 화두를 안 챙겨도 행주좌와 어묵동정에 늘 화두가 없어지지 않고 지속되게 됩니다. 화두를 힘들다고 생각하지 말고 담담하고 설레이듯이 기분 좋게, 이것뿐이라는 마음가짐을 갖고 하면 의외로 쉬운 것이 화두공부입니다."

-화두선은 특히 스승과 수행법에 대한 믿음이 절대적인 것 같습니다.

"스승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정도에 따라 공부 정도가 달라질 정도로 아주 중요하지요. 스승으로 인해 눈을 뜨고 화두도 들게 되고 진정한 공부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 은사(희석) 스님은 말씀이 없

-다른 큰스님들과의 인연담을 들려주신다면.

"성철, 경봉, 춘성, 구산, 서암, 서용, 탄허, 석주 큰스님을 곁에서 모시고 살아봤습니다. 해제철만 되면 유명한 선지식들을 찾아가 가까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자극도 받고 경책도 받으려 애를 썼어요. 해제는 의례히 경책 받으려 다닐 작정을 했지요."

-가장 기억에 남는 큰스님은 어떤 분이셨나요?

"춘성 스님은 가장 남성적인 선승이셨어요. 옛날 조사스님들처럼 전설적인, 결술한 분이셨지요. 해제 철에 수좌 한 분이란 세 분이 함께 망월사에서 산적에 있었어요. 선방에는 이불 자재가 없는데, 9시만 되면 춘성 스님은 탁자 밑의 목침을 꺼내 주머니에 넣어 계시곤 하셨어요. 철순 어른이 주지방도 따로 없이 함께 생활하셨는데, 그분의 한 마디 한 마디가 바로 선어(禪語)였어요. '육쟁이 스님'이란 별명을 들으셨지만, 육이 바로 직설적으로 하는 선이었지요. 스님은 평소에는 대승적으로 너그럽고 활달하시지만 사리판단 하실 때는 대단히 분방하셨어요."

무여 스님은 1940년 김천에서 태어나 젊은 시절 조계사에서 <반야심경> 강의를 듣고 발심, 26세에 오대산 상원사에서 희석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1966년 이후부터 상원사 동화사 송광사 관음사 해인사 등 제방선원에서 20여 년 동안 정진했으며, 칠불사 망월사에서 선원장을 지냈다. 1988년부터 문수산 축서사에 주석하며 증창불사에 매진해 참선전문 교육도량으로 탈바꿈시켰다. 조계종 초대 기초선원 운영위원장을 역임했고 현재 운영위원으로서 후학 양성과 선의 대중화를 위해 진력하고 있다.

불기 2553년 부처님 오신날 수재화고무신코 만행화

특무명
• 가격: 120,000원
• 규격: 215~290mm
• 색상: 진회색

지압솔리퍼
• 가격: 60,000원
• 규격: 230~280mm (10mm단위)
• 색상: 진회색, 검정

지압·동갈창
• 가격: 20,000원
• 규격: 230~280

조각무명
• 가격: 120,000원
• 규격: 215~290mm
• 색상: 자연색

건강샌들
• 가격: 90,000원
• 규격: 230~280mm (10mm단위)
• 색상: 진회색, 검정

3-1밴드
• 가격: 90,000원
• 규격: 215~285mm
• 색상: 검정, 회색

3-1끈
• 가격: 90,000원
• 규격: 215~285mm
• 색상: 검정, 회색

망사단화
• 가격: 80,000원
• 규격: 215~290mm
• 색상: 회색, 검정

사계절단화
• 가격: 80,000원
• 규격: 215~290mm
• 색상: 회색, 검정

문의 및 주문전화: 02)733-5715, 011-9000-5715
입금계좌: 농협 063-12-250427(구자민) 합장
본사, 전시장: 서울 중로구 공평동 143번지 402호 (중각역 2번 출구 100m거리)

기름값의 1/8 이하로 절약되는 돌고래 슈퍼순간전기보일러

국내개발 1호!

기름값 대비 80% 이상 절감
심야전기 대비 1/2 이상 절감 효과

사찰, 포교당, 수련원, 교육시설, 복지시설, 호텔, 모텔, 펜션, 가든 등에 설치 최적함

사찰·포교당·불교시설 상담 대원영!!
전기보일러 15년 경력 전문가 직접 상담·시공
뛰어난 내구성, 30년 이상 반 영구적.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불자 해봉 -

돌고래 슈퍼 에너지
공급원: 서울시 강동구 길동 334-5 / 사무실: 02)471-2356
상담전화: 1688-3346, 011-335-6389
www.superenertec.com

옥외촛불대

불결한 것을 미관이 수려한 유격품으로

■ 미관이 아름답습니다. ■ 청소하기가 간편합니다.
■ 바람이 불어도 꺼지지 않습니다.
■ 양초판매가 증가합니다. ■ 보시용으로 적합합니다.

크기	가로	세로	높이	재질
50개꽃이	90cm	60cm	150cm	스테인레스
100개꽃이	150cm	90cm	150cm	폴리카보네이트
대초기준	※ 위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주문제작 가능			

사찰시설물 제작 전문업체

세영금속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 1가 120-4
TEL 02)2676-0160 / H·P 011-269-3356
E-mail: byoon47@yahoo.co.kr